백령도 가는 하늘길 열린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며 "국방부는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와 국토부는 이번 주 내로 당초 동서로 설계된 활주로 방향을 남쪽으로 일부 수정하는 협의를 진행한다." 면서 "공항 건설에 들어갈 공사비 1,200억원은 모두 국토부가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약 1,200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용역에서는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24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됐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 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작전, 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경계작전·당직 등의 부대임무 소홀과 같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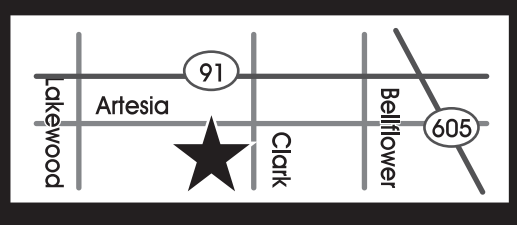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 이라고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5시30분부터 저녁 점호 전인 오후 9시30분 전까지 4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자기개발이나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1인당 월 2회 이내에서 외출이 가능하다.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 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국방부는 부대의 임무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 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 고 밝혔다.

군 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 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